

해양성 레크리에이션⁽²⁾

김 남 형 / 제주대학교 교수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의 활동형태

일본에서는 Meiji 초기에 의학 요법의 하나로서 해수욕이 도입되었다. 그 이전에 바다는 레크리에이션의 장소로서 친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수욕이 일반 시민에게 보급된 이래 해변에서의 레크리에이션은 시대의 요청을 받으면서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었고 정적인 활동이나 동적인 활동, 문화적인 활동이나 창조적인 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져 친숙한 레크리에이션이 되고 있다. 한편 최근 도시화의 진전이나 생활 공간의 고밀도화에 따라 자연과 친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오픈 공간이 감소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주변의 숲이나 물이 있는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

한 동향 중에서 워터프론트나 수변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바다의 존재가 재인식되고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서 바다의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에 의한 해양법 조약(1996년)의 발효에 의해 지금까지와 같이 해양을 교통, 산업, 자원 확보를 위한 장소로서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의 장소로서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해양에서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공간으로서 스케일의 크기, 해면, 해중, 해저라는 장소의 차이, 파도, 바람, 흐름 등의 자연 조건, 풍부한 생태계, 아름다운 경관 등이 시간과 함께 시시각각 표정을 변화시키거나 날씨나 계절에 따라서도 그 환경이 변화하는 등

이용자에게 다종다양한 상황의 즐거움을 주게 된다.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이 자연 환경과의 일체감을 즐기거나 자연 환경을 관상하는 것으로서 정신적인 평온함이나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거나 자연 환경 속에서 취미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보통 여러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나 연대감이 증대되는 효용도 기대할 수 있다.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기본적인 분류는 활동 형태의 해양에 대한 의존성 차이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것은 해양에 의존한 활동과 해양에 관련된 활동이다. 해양에 의존한 활동이란 해양이나 해변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는 활동이고 직접적으로 활동이 해양에서 행해지는 항해, 다이빙, 해수욕 등이며 보통 해양 레크리에이션으로 호칭되는 것이다. 또한 해양에 관련된 활동이란 해변에서 보다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간접적인 활동으로서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경관의 감상, 캠프, 사이클링 등으로 보통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으로 호칭되는 것이다. 또한 본서에서는 해양

성 레크리에이션이란 직접적으로 해양을 이용하거나 간접적으로 해양을 이용해 행해지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총칭해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이처럼 해양을 이용한 활동에는 대상으로 하는 해양의 특성이나 그 활용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고 광범위하며 다양하게 되어 있다. 보통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에서는 이러한 동작이 복합된 형태로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도시 생활에 의한 자연의 고갈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자연 속에서 자기를 개방하고 싶다는 욕구에 의해 해양의 자연 환경 속에서 긴장완화나 재충전을 얻고자 하는 '자연성'에 대한 욕구를 채우는 것이다. 두번째로, 해수욕이나 낚시 등 비교적 주변에서 저렴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기고 싶어하는 '친근성'에 대한 욕구를 채우는 것이다. 세번째로,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것에 추가하여 세련된 의상이나 상품으로 몸을 감싸고 활동하려는 패션지향을 가진 '패션성'에 대한 욕구를 채우는 것이다. 네번째로, 바다의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다양한

활동 방법으로 즐기고 싶어하는 '다양성'에 대한 욕구를 채우고 다섯번째로, 해변에서의 일광욕이나 해수, 해풍에 잠기는 해양 요법 등을 만끽하고 싶다는 '건강성'에 대한 욕구를 채우는 것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을 활동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약동형' '교환형' '보양형' '휴식형'으로 나눌 수 있다. 약동형은 이른바 해양스포츠로 불리는 것이 많으며 그 종목에 따라서는 기량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것도 있고 활동하는 것에 의해 묘미가 느껴지는 속도감이 넘치는 듯한 활동을 주체로 한 레크리에이션이다. 교환형은 해변에서 부담없이 안전하게 놀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즐기는 것을 주체로 한 레크리에이션이다. 보양형은 신체적, 육체적으로 활발한 활동은 하지 않고 경치나 익숙치 않은 해중 모습을 바라보는 등 정서적·감상적인 취향에 기초하여 정신을 쉬게 하고 즐기는 것을 주체로 한 레크리에이션이다. 휴식형은 해변에서 손쉬운 운동이나 그 분위기를 즐기므로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쉬는 것을 주체로 한 레크리에이션이다.

최근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대중화, 다양화, 개성화, 복합화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종래까지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형태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활동 형태가 출현하기 쉽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활동이 급속하게 전해지고 보급되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빈번하게 행하여 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러한 새로운 시설이나 장소를 찾는 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의 활동거점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은 레크리에이션 활동 중에서도 비교적 새로운 활동이기 때문에 시설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미비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활동인 해수욕에 대해서도 전국 각지에 해수욕장은 있지만 그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는 여전히 계절적으로 만들어지는 간소한 「바다의 집」정도이므로 결코 이용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지 않다. 또한 기타의 활동에 대해서 보더라도 시설이나 거점의 충족률은 낮고 활동하는 장소는 자연 환경에 의존한 형태로 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다.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생활권 레벨로 파악해 보면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은 광역 생활권, 고차원 생활권 레벨에 겨우 자리잡은 정도이다. 따라서 그 시설종류도 적고 일반화를 위한 보급이나 정비가 늦어짐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각각 사람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것, 비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것, 양쪽 모두에 걸치는 것 등이 있는 것도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행동 체계로서 활동에 요구되는 장소는 특정화된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주변의 공간이나 환경도 포함하여 활동이 행해진다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요트경기, 크루징, 유어 등이 행해지고 있는 해역은 연안어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어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만이 있는 곳에서는 항만이나 항로가 있는 것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있거나 복합적으로 장소나 공간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해 정비되어 있는 주요 시설이나 거점을 <표-1>에 나타낸다. 또한 전국에 있는

<표-1> 해양성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주요시설

활 동	시 설	활 동	시 설
크루징	마리나	사이클스포츠	사이클링로드(도로)
세일링	요트항구	유람	선착장
보팅	잔교	해중유람	해중전망탑
보딩	클럽하우스	여행	별장
다이빙	다이빙스포츠, 선착장	풍경감상	전망대
해수욕	해수욕장, 인공비치	견학	마린랜드, 수족관, 박물관
유어	유어선, 잔교, 안벽	산책	레크리에이션트레일
조개잡이	조개잡이장	피크닉	바비큐장, 잔디광장
캠프	캠프장, 오토캠프장	쇼핑	어업인의 부두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분포를 보면 해안부나 산악부 등에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공간, 초목, 생물, 흙, 물, 태양을 자원으로 한 자연 환경과 일체화되거나 그 입지에 대해 자연이나 풍토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레크리에이션 자원으로서 “한다”는 행위에 대해 「장소」와 「장소의 상태」가 대상이 된다. 그 때문에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되기도 한다.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자연 환경의 상태와 깊이 관계되므로 자연 자원의 분포에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사면이 바다인 하지만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요구되는 바다의 조건이 반드시 모든 활동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며 복잡한 해안 지형이나 혹독한 해상 조건 등 해양 환경 조건이 대체로 아주 나쁜 장소가 많다. 그러므로 시설을 세울 때 충분한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활동 내용으로 보아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시설 성립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이 해양에 의존하며 해양에 관련된 활동인 것은 이미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해양에서 행해지는 요트경기나 해수욕과 같은 활동이 있는 한편, 해양 경관의 감상, 캠프 등 장소성으로 인해 활동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활동은 대개 정선으로부터 수역쪽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과 육역쪽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선인 해안선의 지형적인 조건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

여기서 <그림-1>에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해양 공간의 공간적인 이용 범위를 나타낸다. 이것에 의하면 해변의 후빈 주변에서 해변 게임, 산책, 캠프 등이 행해지며, 전빈 주변에서는 해수욕, 낚시, 개펄 조개잡이 등이 행해지고 있다. 수역으로서 전빈 및 외빈에서는 보팅, 유어, 다이빙 등이 행해지며, 외빈을 포함한 연안에서 요트경기, 보트타기 등이 행해지고 있다. 대체로 해면을 주요 공간으로 이용하는 활동이 많고 수역에서의 활동은 아천해역까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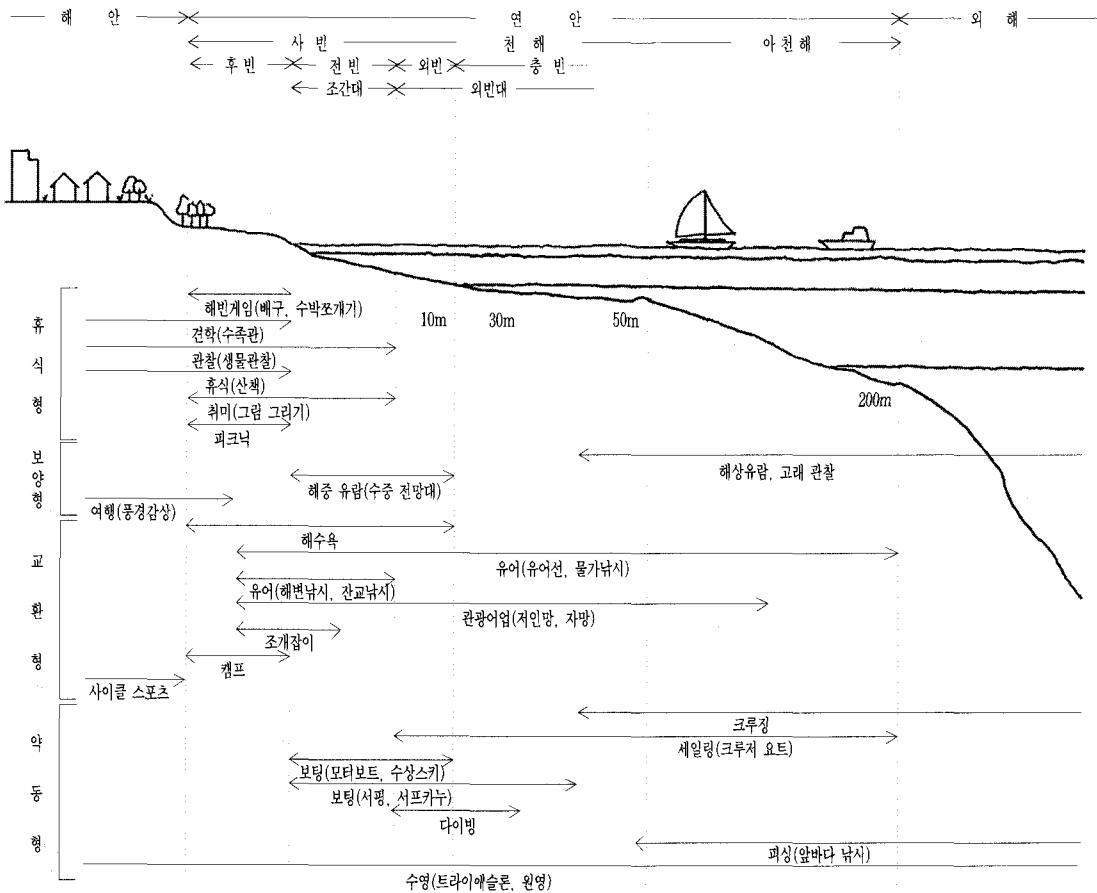
한편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그 활동 목적을 위해 사용되

는 공간을 인공적으로 시설이나 장치하는 것과 자연 환경으로 존재하는 바다를 활동 공간으로서 그 상태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어느 쪽이든 해양의 자연 환경을 어떻게 보전 이용하면서 활동을 전개할 것인가와 이를 위한 시설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협조하면서 정비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의 정비시책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향유하는 데 없어서 안되는 것으로 정착되고 있다.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진흥하는 것은 풍요롭게 여유가 있는 일상생활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 때문에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정책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공원, 해변 등의 기반 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정책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간접적으로 폐해가 되는 요인, 즉 특정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거나 인구가 집중되는 것 등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과거에



〈그림-1〉 해양공간의 이용범위

는 1969년의 신전국종합개발 계획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대규모 관광 레크리에이션 기지의 사고방식으로서 「관광 레크리에이션 개발과 일체가 된 사회 자본의 정비」가 제시되었으며 그속에 대규모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기지의 구상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충실한 발

전을 꾀한다는 시대의 요청에 대응한 전개 결과이다. 또한 1987년에는 통칭 리조트법으로 불리는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이 제정되었으며 양호한 자연 조건을 가진 상당 규모의 지역에 스포츠·레크리에이션·문화 활동 등을 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능을 구비한 지역 정비를 꾀하였다. 이와 같

은 레크리에이션 시설 정비 가운데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정비도 진흥되었다.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정책으로서 운수성에서는 1988년도에 1999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비전 「Marine 99계획」을 책정하고 이중에서 프레저보트 보관 기능의 충실과 워터프론트 공간의 매력 증

진을 피하는 동시에 안전성의 확보나 정보 제공 체계의 강화, 크루즈의 수요에 대한 대응을 피하는 것 등이 골자로 되어 있다. 게다가 푸르고 운택하며 풍부한 해양 환경의 보전과 창조, 주변에 즐거운 장소의 형성, 「스스로 지키는 안전 확보」를 장려하여 지역성·다양성의 추진을 피하는 것 등을 사항을 중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항만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정비로서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기지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 마리나나 보트 파크의 정비를 진행하고 특히 지방 항만을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거점 항만으로서 지정하여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거점 항만 정비 촉진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민간 사업자에 의한 마리나 정비에 대해서는 「소형선 거점 종합 정비사업」을 활용하거나 「부두 정비자금 대부금사업」 및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에 의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객선 터미널의 정비나 항만에 풍족한 공간을 보전·창출하기 위해 항만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친수성이 풍부한 녹지 등의 정비를 실시하는 동시에 인공 해변 등과 오토캠핑 시설을 일체화하여 정비하는

「seaside·auto village 정비 사업」을 창설하였다.

수산청에서는 어항의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정비로서 어선과 프레저보트가 질서있게 어항 이용을 피하는 동시에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공간의 창출에 도움이 되는 피셔리너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서 어항에서 어선 이외의 어항 이용에 대해서도 어항을 개방하고 있다. 또한 어항의 경관 유지, 미화를 피하는 동시에 도시 주민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광장, 캠프장, 낚시 잔교, 친수호안의 정비를 실시하는 「어항 환경정비사업」의 실시나 「신해양개발 거점 교류 촉진 종합 정비계획(접촉 정비 계획)」의 책정 조사를 실시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성에서는 연안·리조트·프로젝트 및 연안·커뮤니티·존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연안·리조트·프로젝트는 마리나나 인공 해변을 정비하고 연안역에 존재하는 역사, 문화나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네트워크를 만드는 조사와 사업화를 실행하고 있다. 연안·커뮤니티·존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이 바다와 친숙하게 모이고 쉴 수 있는 장소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정비를 위한 계획이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운수성, 농림수산성, 건설성에서는 해안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정비로서 사빈의 보전·복원 등에 의해 사람과 바다의 자연이 만나는 경관상으로도 뛰어난 장소를 정비하는 해안 환경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바다나 해변이 가진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양 요법을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활동 장소의 정비와 더불어서 해역의 환경 정비로서 퇴적물 준설이나 수질의 향상을 피하는 등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항만, 어항, 해안 등에서의 녹지 정비사업은 해역 환경 창조사업(sea blue 사업)이나 수역이용 활성화사업(refresh·seaside 사업)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㉞